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다가오는 여름공동체생활(27일-30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 생활공동체 전체 모임이 26일(수) 12:00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병우 · 정영옥 집사 가정 (감사)
한호남 · 정승희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29 호

2023년 7월 1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최근에 멋쟁이학교에서 속초로 종강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멋쟁이학교의 종강여행은 학기를 마무리하는 최종과정이기예, 기말면담과 종강 발표회 그 이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내심 갖고 있던 기대가 헛되지 않게, 이번 여행에서는 멋쟁이 학생들의 성장과 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장면들도 이따끔씩 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의 폭을 넓히자는 피드백을 들었던 학생이 타인과 대화하려는 모습, 강한 자아를 가진 학생의 경청하는 모습, 주어진 역할에 도망치지 않고 성실히 임하는 모습 등을 말이지요. 점수에 상관없이, 피드백 그 이후에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실천하고자 하는 멋진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회를 잡는 것에 대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밑에 옮겨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다.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자 집들마저 물에 잠기고 말았다. 사람들은 모두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중 한 남자는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주시옵소서." 그때 이웃 사람이 통나무를 붙들고 물에 둥둥 떠 있었다.

"어서 이 통나무를 잡고 같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려 오실 것입니다. 옆집의 저 사람부터 구해주시시오." 그리고 그 남자는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때 보트를 탄 구조대가 나타났다.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어서 보트를 타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실 것입니다. 저는 괜찮으니 우선 다른 사람부터 구해주시시오." 구조대는 결국 뒷집 사람을 태우고 멀어져갔다. 물은 어느새 지붕까지 차올랐다. 남자는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주를 믿사옵나이다." 때마침 남자의 머리 위로 밧줄이 내려왔다. 구조헬기였다.

구조대는 어서 밧줄을 잡고 올라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남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려 오실 것입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구하십시오." 헬기마저 떠나고 비는 계속해서 퍼부었다. 남자는 불어난 물에 휩쓸려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남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았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저는 이렇게 죽었던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너에게 통나무도 보냈고, 보트도 보냈고, 헬기도 보냈다. 내가 내민 손길을 잡지 않은 건 내가 아니냐."

이 남자는 신앙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해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웃의 통나무, 구조대의 보트와 헬기 모두 그에게 구원의 기회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뭔가 신비롭고 번쩍이는 초월적인 것을 구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모세처럼 물이 갈라지는 장면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서는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도록 이끌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개인의 내면에 드는 생각과 마음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시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들을 허락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을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손은 어떤 형태로 사랑방공동체에 내밀어져 있을까요? 우린 또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지체들이 함께 모여 같은 시간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뜻깊은 경험을 기대해보며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모임을 이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대 이상으로 예비하셨으리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
<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379장 335장 / 212장

기도 :

성경 : 역대지하 26장

제목 : 교만한 자의 최후

1. 내용: 웃시야 왕. (What)

<문단구분>

1~15 강한 왕 웃시야

16~21 나병에 걸린 웃시야

22~23 별궁에서의 왕

2. 의미: 자신의 업적들로 인해 교만해 진 웃시야 왕. (Why)

1)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아 나라를 잘 다스렸다.

2) 웃시야 왕은 교만해졌다.

3) 용기를 가진 자들이 왕의 폭주를 막았다.

3. 적용: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우자. (How)

1)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우자.

2)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훈련하자.

3)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자.

어린이학교가 좋은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방공동체 어린이학교 5학년 정아영입니다.

제가 어린이학교에 다녀보니 어린이학교는 참 좋은 학교입니다. 저는 어린이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럼, 어린이학교가 좋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학교는 학생이 적어서 친구들과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학생들과 친합니다. 함께 놀 친구가 없을 때라도 다른 학생들과 놀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엄청 친절하십니다. 가끔 숙제를 안 해와도 봐주십니다. 어린이들을 잘 돌봐주십니다. 다쳤을 때 치료도 잘해주시고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도 꼼꼼하게 잘 알려 주십니다.

또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아서 좋습니다. 보통은 공기놀이를 하거나 축구를 합니다. 방방이도 신나게 탑니다. 특히 간식과 점심 식사가 정말 맛있습니다.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고기가 나올 때도 있고, 가끔 스파게티나 함박스테이크도 나옵니다. 간식은 떡볶이가 가장 맛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학년 때 먹고 그동안은 먹지 못했는데 다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학교는 여행을 자주 갑니다. 개강 여행, 조별 캠프, 에버랜드, 반별 여행, 학년별 여행, 도보여행, 종강 여행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중 가장 특별한 여행은 에버랜드와 도보여행입니다.

에버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캐리비안베이에서도 놀입니다. 가장 신나는 여행입니다.

도보여행은 한 줄로 서서 맨 앞에 회장이 걷고 하루 종일 걷는 여행입니다. 도보여행을 통해서 제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고 함께 협력해서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도보여행은 4년 만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게 되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어린이학교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사랑방 정아영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신명기 6 : 4-5 인도자
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6 : 37 인도자
 다함께
28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선포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 정재훈 목사

디모데전서 4 : 1-9 설교자
429 새싹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14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조향민 최신혜/ 봉헌위원 : 정혜정/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경건 훈련의 참 기쁨을 깨달아
매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는 지식.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경건의 실천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특히 비참한 인간의 상황을 아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소중함과 믿는 자의 특권을 이해하게 됩니다.

경건함을 방해하는 장애물. 자기 중심으로 성경말씀을 해석하는 태도는 경건함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길에 머물러 있는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진실 된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연습이 고되다는 잘못된 인식이 경건함을 훈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경건함을 위해 몸을 훈련하십시오. 경건함은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경건함을 연습하십시오.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지 말고, 말을 아껴서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게으르지 않게 살피야 합니다. 자신이 발전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채영대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2박3일 동안 속초로 여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쉽게도 이튿날은 수족구병에 걸려 함께 가지 못했지만 7명의 꾸러기들과 교사들 그리고 엄마 선생님 2명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 날은 등대해수욕장에 가서 동해의 푸른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을 만끽했습니다. 물가에 누워 온 몸을 바닷물에 적셔보고 모래구덩이를 파고 몸을 묻기도 했습니다. 물놀이를 하는 내내 꾸러기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숙소로 가기 전 속초중앙시장에 들러 대게, 멍게, 해삼, 새우, 복어, 도다리, 삼식이, 오징어 등 많은 해산물을 보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숙소 근처에 있는 워터피아에 가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7명의 꾸러기들 모두 물놀이를 매우 좋아해서 파도풀, 유수풀, 바구니 물 폭탄 코너 등을 돌며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마지막 날엔 속초시립박물관에 가서 상모놀이 공연을 관람하고 발해박물관에도 다녀왔습니다.

엄마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밥도 최고였고 바다랑 워터피아 물놀이도 최고였고 씩씩하게 두 밤을 잘 자고 사이좋게 잘 논 꾸러기들도 최고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지음이의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어린왕자를 닮은 사랑스러운 개구쟁이 지음을 위해 생일카드를 전하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꽃가마를 태워주고 이불쌔매를 끌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며 우리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랑해, 지음아! 생일 축하해, 지음아!"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 여름방학은 18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특별한 시간들이 계획되어 있어서 정규 수업 일정은 지난 금요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린이학교 예배, 여러 강사 선생님들의 수업, 한 학기 동안 매일 했던 연산 시간, 그리고 각종 학과 수업 시간을 '이번 학기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잘 마무리하였고, 각자 사물함 짐과 악기들도 잘 꾸러서 가정으로 챙겨 갔습니다.

어린이학교는 여행 피드백 외에 통합반별, 그리고 학년별 피드백 시간을 학기말에 갖는데, 이번에는 지난 월요일에 두 번의 피드백 시

배움과 가르침

간을 모두 가졌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고, 같은 반, 같은 학년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습니다. 예리하면서 애정 어린 시각이 다양한 거울이 되어 우리 친구들을 비춰줬고,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다듬을지 각자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3월부터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고 보니 그 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고, 모두들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흐뭇합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학부모님과 담임(반, 학년) 교사가 함께하는 1학기말 면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공동체가 함께 키운 어린이들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이지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또 감사하며 2023년 1학기가 거의 저물어 가네요.^^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에서는 월요일 저녁에 등교하여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속초에 종강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종강여행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여행입니다. 달라진 위치에서 새롭게 만나왔던 1학기의 관계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좋은 끝맺음을 지나왔습니다. 일정들도 풍성했습니다. 우중충한 바닷가 놀이, 밤중의 레크레이션, 피부색이 변해갔던 축구 삼매경, 흥미진진한 영화 감상, 비슷하면서도 색다르고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공동체훈련, 신비로운 분위기 안에서 둘 씩 짝지어 오붓하게 진행된 안도 타다오의 뮤지엄 '산' 탐방, 너도나도 자기 손을 바라보게 만드는 볼링, 최종적으로 서로를 향한 시야와 마음을 나누었던 피드백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즐거운 경험들이었습니다. 대청소까지 마치고, 작별 인사를 하는 멋쟁이들의 마음은 방학에 대한 기대감과 시원섭섭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더욱이 울리안 선생님의 귀국 소식이 섭섭함을 한 층 더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름방학과 함께 그 간의 일들을 부모님과 나누는 학부모 면담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모든 멋쟁이가 잘 쉬면서 추억들과 당부들을 마음에 품고, 즐겁고 뜻깊은 방학을 보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울리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나 가르침 등으로 동행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우산

장마기간이다. 참 많은 비가 쉬지않고 내린다. 모든 물건들에 푹푹하고 축축한 느낌이 서려있다. 요즘은 우산이 필수이다. 집집마다 다양한 크기의 우산들이 있고 아이들은 캐릭터우산, 어른들은 검은색 우산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집에도 티니핑, 팽수 캐릭터 우산들도 있고 원색의 우산, 투명한 우산도 있다. 그리고 크고 검은 우산이 있다. 하민이가 3일 연속 집에 가장 큰 우산만을 들고 나간다. 욕심인가? 무거울텐데... 오늘 아침에도 집에 있는 가장 큰 우산을 가지고 간다.

“하민아! 너 전에 상으로 받은 팽수 우산 들고 가~”

“난 이 우산 가지고 갈게!”

또 가장 크고 검은 우산을 들고 간다. 체구가 작은 아이가 들고 가니 이어람 선생님이 쑥 뽑아 올린 파라솔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

“불편하지 않아?”

“이거 들고 가서 우산 안 가져온 애들 씌워줄 거야.”

아... 아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그 본연의 성격도 있겠지만 이 터위에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자신이 본 것과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간다. 생각해보면 이곳에 와서 우리 가족들은 참 다양한 섬김들을 경험하고 있다. 쌍둥이들은 가끔 욕조에서 물장난을 하고 싶으면 옆집에 놀러가서 씻고 온다. 집 앞에 찬거리와 음식재료들을 놓고 가시기도 한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누가 놓고 가셨는지 모르는 것도 있다. 최근 아내는 꾸러기 식사보조 선생님이로 떠나고 생활공동체엔 저녁 공동식사가 없을 때, 그루터기에 한 가정에서 세심히 배려하시며 하민이와 나를 저녁식사에 초대 해 주신다. 아침에 나와 계속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얻어마시는 음료는 청량감을 더해 준다. 적다보니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각한다.

이번에는 하민이가 우산이 바뀌었다. “큰 인형을 들고 가야 해서 내가 바꿔줬어~”

역지로 바꾼 것일까? 상대가 부담되겠다. 하지만 배워나가는 과정이겠지? 오늘도 베풀과 나눔으로 사랑을 배워나간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218장, 301장

성 경 : 전도서 3장 16절~22절

말 씬 : 받은 몫을 즐거워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내전중에 있는 수단을 위해 >
 - 수단의 평화를 위해 돕는 세력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 전쟁으로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밥퍼운동본부를 위해>
 - 철거명령과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어 어려움 중에 있는 공동체에 돕는 손길들이 있기를 위해
 - 이 일의 처리를 맡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여행과 면담으로 학기 마무리 중에 있는 공동체학교들을 위해
 - 아픈 지체들을 위해
 - 여름공동체생활에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간에는 꾸러기학교와 멋쟁이학교 모두 속초로 여행을 가는 바람에 생활공동체 식구 다수가 속초에 머물렀습니다. 나집사님도 만나 뵈고 큰비가 내리지 않은 속초의 날씨 덕에 비도 잠시 피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 식구들은 많은 비가 오는 중에도 옥수수를 따서 여행에서 돌아온 멋쟁이들에게 마지막 간식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밭을 비롯한 각 처에 배수로를 신경 써서 살펴야 합니다. 습기와 곰팡이와도 싸워야 하고요. 본격적인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